

# “손학규·정운찬 영입 위해 필드 만들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 한달

안철수만으론 대선 어려워  
공정 경선의 장 만들 것

정부 전면 개각 쇄신 필요  
박·김 영장 재청구 유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당원과 국민, 언론은 당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백번의 전투로 부상을 입었지만 상처에 새살이 돋으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노장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철수 전 대표 혼자로는 안 된다”면서 “안철수의 새정치와 천정배의 개혁진보, 정동영의 통일정책 등이 총동원되면서 외부에서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정운찬 전 총리 등이 우리 당으로 들어와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필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분들 외에도 당에 들어와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하겠다”며 “그것을 위해서는 당헌·당규 제·개정이 확실하게 돼야한다. 그 문제가 분명하게 될 때 외부 인사들도 우리 당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안철수 사당’으로 보여지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 박지원 비대위가 출범했다. 당의 골격을 갖춰 여러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필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차기 당권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와 비대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선 “전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비대위원의 수명은 단명할수록 좋다”면서도 “지금저의 거취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당에 혼란을 준다. 다수의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당 정비가 될 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은 부인할 수 없는데, 자우 친박(진박근혜)을 내세우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박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를 정리하고 성공한 대통령의 길로 가려면 초당적 입장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중립 내각을 꾸렸던 경험이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대폭적인 전면 개각을 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와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해 하고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구조조정 책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조사나 청문회가 반드시 선행돼야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고 말했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은 “누리과정과 추경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당 정책위와 예정 위 위원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추경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연계시킬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구속영장 기각 후에 다른 사례가 수사상 밝혀진 것이 없는데 똑같은 사유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홍보위원회의 동영상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검찰 수사가 조용하나”고 따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추경안 진통... 다음달 처리 불투명

여야 기존 입장 되풀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내달 12일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대우조선험 양 부실을 알고서도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의 진상 조사 등을 추경과 연계할 예정이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과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

통령이 대독한 추경 시정연설에서 이른 시일 내에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지만 정부 추경을 아무리 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안 된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정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누리과정’을 불모로 ‘경제 살리기 추경’에 대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비박계 정병국-김용태 단일화 합의

새누리 전대 오늘까지 여론조사로 결정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 출마한 비박(비박근혜)계 당권 주자들의 단일화 협상이 구체적 성과를 냈다. 우선 정병국, 김용태 의원은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8일 후보 단일화를하기로 합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29일 정오까지 두개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해 새누리당 지지자 70%, 일반 국민 3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해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결국 수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 유권자의 70%를 당원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에 비해 조직력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어 표가 분산되면 결국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비박계 주자들의 공통된 상황 인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만, 중도분류되는 당권주자 추호영 의원은 일단 이날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있다. 결국, 현재 추세대로라면 정, 김 의원 간 1차 단일화 이후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 2차 단일화 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관심을 끌기에 유리한 구조다. 이에 대해 친박계 이주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반발했다. 이 의원은 “계파를 청산하고 대화합을 하라는데 단일화를 통해 또 다른 계파 대결을 하자는 것은 당을 계속 계파의 투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배신 행위”라면서 “비박 단일화를 결행한다면 그것은 곧 친박 단일화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민주 당권 ‘4파전’... 컷오프 누구? 관심 집중

이종걸 가세... 다음달 5일 예비경선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28일 이종걸 의원이 가세함에 따라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당권 경쟁 구도는 추미애, 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등 ‘법천문(친문재인)’ 후보와 비주류 주자인 이종걸 의원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더민주는 다음 달 5일 예비 경선을 실시, 4명의 후보를 3명으로 압축시킬 예정이어서 ‘컷 오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주류와 비주류의 대결 양상 속에서 당내 주류인 친문 진영의 표

심과 비주류 진영의 결집 여부가 예비 경선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종걸 의원의 출마 결정으로 예비 경선이 불가피해지면서 다음달 27일 본선을 바라보고 당권 행보를 보여 온 추 의원과 송 의원, 김 전 위원장 등 후보들도 전략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예비 경선에서는 한 명의 탈락자가 가려지는 것은 물론, 자칫 1~3위 순위가 밖으로 알려질 경우 본선 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표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비주류인 이종걸 의원의 합류로 기존 경쟁 구도에 일정 정도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송 의원이나 김 전 위원장이 확보한 ‘비주류 표심’을 이 의원이 잠식하면서, 역설적으로 ‘친문 후보’ 색채가 강한 추 의원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한다면 본선에서는 ‘친문 진영의 표’가 한 후보에게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비주류나 중도 진영의 표심이 결집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주류의 이종걸

의원이 탈락할 경우, ‘도로 친문당’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더민주의 외연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각 당권 주자는 컷 오프와 대표 경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호남 표심 잡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호남은 물론 호남 출신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수도권 승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분간 호남과 친문 성향의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엄마 리더십 발휘 호남 민심 복원”

더민주 당권 주자 추미애 광주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은 28일 “(당대표가 되면) 집나간 자식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엄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통합을 역설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곧바로 텃밭인 광주로 이동해 광주·전남 1박 2일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달 12일에도 광주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추 의원은 광주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가 호남 집배한 것과 관련 “호남 지역민이 열패감을 느끼고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한데 당원으로서 송구하다”

면서 “당 분열을 막아내 (기존)지지세력이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의 두터운 지지층 복원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호남 정신과 가치 복원을 위한 엄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간담회 뒤 광주 서갑, 전남 나주·화순, 광주 광산갑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고 운장현 광주시장을 만난다. 29일에도 광주, 여수, 광양·곡성·구례 등 대의원 등을 상대로 지지해 호소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